

발행처 고양연구원 발행인 김남준 www.goyang.re.kr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존 9층 TEL 031-8073-8341

고양시, 어떻게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할 것인가? -제네바 사례를 중심으로

안지호 고양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수 고양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인 고양연구원 인턴

요약

□ 왜 제네바인가?

- 유럽의 작은 도시 제네바가 국제기구의 도시로 발전한 사례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두고 광역시와 경쟁하는 고양시에 규모가 아닌 유치의 세련된 논리와 전략 제시
- 고양시는 국제외교단지·UN 제5사무국 유치·국제평화도시를 추진하여 이미 국제 의제와 도시 자산 보유

□ 제네바는 어떻게 국제기구 도시가 되었는가?

- 국제적십자위원회 설립과 엘라배마 중재로 국제연맹 본부 유치 경쟁 이전에 인도주의·분쟁해결 의제 선점
- 도시의 중립적 입지와 인도주의적 명성을 국제연맹 본부 유치의 구체적 논리로 전환
- 윌리엄 래퍼드(William Rappard)의 월슨 대통령과의 신뢰와 국제 인맥, 리더십으로 스위스 국민 설득
- 시와 연방 정부는 세제 혜택·토지 제공, 국제기구건물재단 설립으로 국제기구 정착을 제도화

□ 고양시의 제네바-되기

- AI 교육(EBS)·국제 규범(사법정책연구원)·보건의료(국립암센터, 국제병원연맹) 3대 의제를 선점하고, 고양시의 도시 자산인 평화와 생태를 입지 논리로 활용
- 고양특례시장, 지역 국회의원, 관내 대학 총장과 대형병원장,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시민들의 유치 공감대 강화
- 고양시는 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01 글로벌 AI 허브와 지자체 유치 경쟁

■ 글로벌 AI 허브란?

- UN 산하전문·협력 기구에 흩어져 있는 AI 관련 기능과 부서를 한 곳에 집적하여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구상해 UN에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기구
 - 개별 기구가 각자 수행하던 AI 기능을 물리적으로 집적하여 국제 AI 규범·정책 논의의 단일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
 - AI 윤리와 국제표준 마련, 기술협력, AI 관련 법·제도 및 공공정책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
 - UN 기구뿐 아니라 다자개발은행 등도 참여하여 국제 규범 형성과 개발재원을 연계하는 구조로 추진

■ 유치 추진 경과

-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UN AI 허브 유치위원회' 및 유치지원 TF 출범을 통해 범정부 유치를 공식 선언
- 3월 16~17일 국무총리의 뉴욕·제네바 순방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 6개 UN 기구와 협력의향서(LOI) 체결
- 5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3개 기구의 추가 참여로 총 9개 UN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개최
- 2026년 5월 21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EBI) 등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에 설립·운영될 AI 특화센터와 '글로벌 AI 허브' 간 연계 방안 발표

■ 국내 입지 선정 절차 착수

- 정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입지 선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도로 최적 입지 선정 추진
- 2026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 대상 입지 공모를 거쳐 연말 또는 2027년 초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

AI 허브 비전 선포식



〈자료〉 세계일보, 「한국 주도 '글로벌 AI 허브' 출범」.

■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 본격화

- 부산·인천·광주·경북·제주·경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산업·입지 기반을 앞세워 잇따라 유치 의사 표명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한 송도 입주 15개 국제기구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학교·병원·주거 등 국제기구 정주 기반을 강점으로 제시
 - 부산광역시는 해저광케이블과 항만·물류망, 안정적인 전력 공급,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
- 경기도는 2026년 7월 6일 도지사의 유치 추진 지시를 계기로 광역 차원의 유치를 공식화하고 연구용역 및 전담조직 구성 등을 검토
 -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AI·ICT 기업 집적,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바이오 특화단지·피지컬 AI 기반, 오산시는 유치 준비 예산 10억 원 확보, 파주시는 임진각의 분단·평화 상징성과 UN 인도주의 사업과의 연계를 주요 강점으로 제시

■ 고양시 유치 추진 현황

- 고양시는 2026년 8월 10일 스마트시티과에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범시민 추진단·자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 구축
 - 킨텍스 국제회의 인프라, 인천·김포공항 접근성, GTX-A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기반 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
 -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치 선언식과 9월 7일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포럼 개최 및 경기도에 유치 제안서 제출 예정

고양특례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선언식,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고양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자료〉 고양특례시,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선언식」,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고양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

02 왜 제네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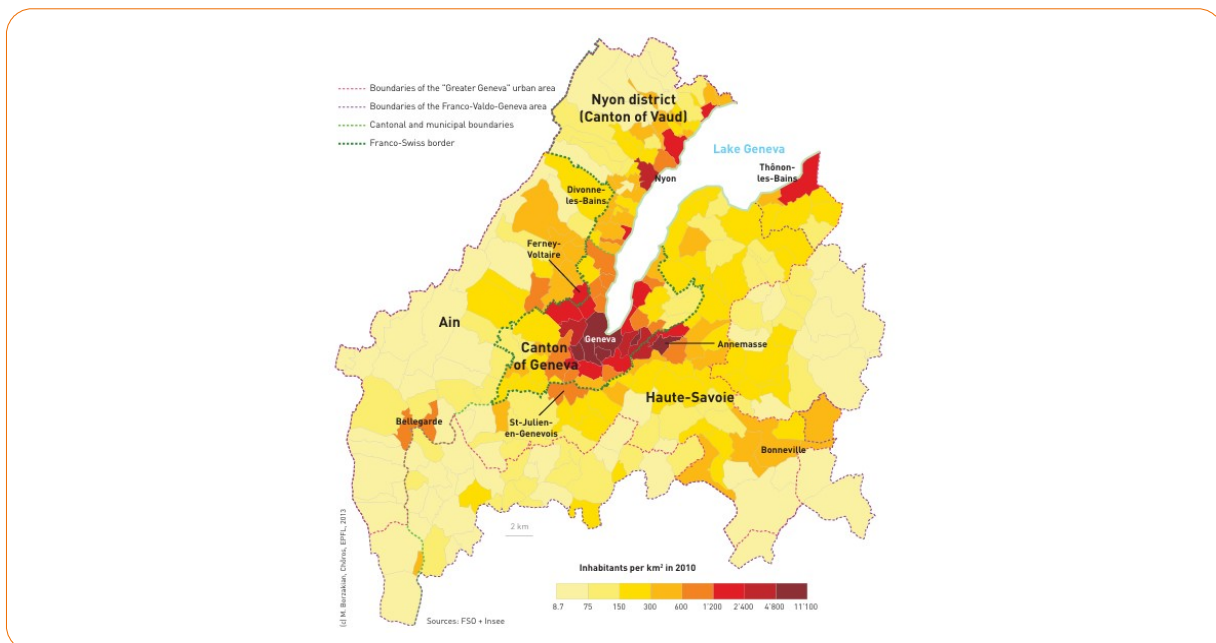
□ 고양시가 제네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국제기구 유치는 선언적 의지보다 부자·시설, 재정 부담, 외국인 정주 대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유치를 추진할 리더의 역할이 핵심
- 유치를 위해 인천, 부산, 제주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인구 30만이 안 되는 제네바는 고양시의 유치 논리와 전략에 많은 시사점 제공
- 제네바는 국제기구 유치 이전부터 국제 의제를 선점·축적하고 기존 도시 자산을 입지 경쟁력으로 전환했으며, 시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바탕으로 100년에 걸쳐 국제기구 중심지로 발전한 대표적 사례
- 도시의 규모나 산업 기반만으로 국제기구의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보유한 역사·사회적 자산을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과 연결하고 관련 기관과 인력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고양시는 신도시 형성 이후 국제외교단지 조성, UN 제5사무국 유치, 국제평화도시 추진 등 국제도시를 지향해 온 경험과 도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네바와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음

□ 출발, 작은 도시 제네바가 가진 조건

- 지리적 조건
 - 제네바는 스위스 남서쪽 끝에서 프랑스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레만호 남서쪽 끝과 론강이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
 - 알프스와 쥐라산맥 사이의 주요 통로에 자리하는 제네바는 알프스 고개를 통해 이탈리아, 손-론 지역을 따라 지중해로 연결되며 유럽 각 지역과 연결

제네바의 지리적 특성



〈자료〉 Fondation pour Genève, 『Impact』, 2013, p. 28.

○ 역사 및 사회적 맥락

- 종교개혁 이후 유럽 각지의 개신교 난민·학자·학생 유입으로 자본·기술·지식이 동반 축적
 - 제네바는 도시 규모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 지역보다 유럽·해외와의 관계 확대를 도모
- 제네바는 나폴레옹 체제 붕괴 후 스위스 연방 편입, 1815년 영세중립의 국제적 승인
 - 특정 강대국의 수도가 아니며 어느 한 진영에도 직접 속하지 않는 정치적 위치를 바탕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 이러한 지리적 연결성, 외부 인구와 지식의 유입, 정치적 중립성은 이후 제네바가 국제적 협상과 중재의 장소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 도시 자산으로 작용

■ 현재,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심지로 성장

- 현재 제네바에는 42개 국제기구와 497개 NGO, 186개국의 상설대표부가 집적되어 국제기구·시민사회·각국 정부가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국제협력 생태계를 형성
 - 제네바의 국제기구 생태계는 인도주의와 인권을 넘어 보건·노동·통상·지식재산·정보통신·난민·기상 등 다양한 국제협력 의제를 포괄
- 분야별 핵심 기관이 인접하여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형성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난민기구(UNHCR) 등 분야별 핵심 기관이 가까운 지역에 집적
 - 보건 분야에서는 WHO를 중심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활동하며 감염병 대응, 보건재원, 백신 보급과 같은 상호 연계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 구비
- 제네바의 입지 경쟁력은 중립성과 국제적 명성뿐 아니라, 업무상 협력해야 하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행위자가 이미 모여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
- 제네바는 개별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도시를 넘어, 기존 기관의 집적이 다시 새로운 기관을 유인하는 국제기구 중심지로 발전

제네바의 국제기구 집적 현황



〈자료〉 Geneva Graduate Institute, 「International Geneva」.

03 제네바, 어떻게 국제기구 도시가 되었는가?

■ 첫 번째 요인 - 국제기구보다 '국제 의제'를 선점

○ 국제 의제의 발생(1859~1864)

- 1859년 앙리 뒤낭이 솔페리노 전투를 계기로 전쟁 부상자 보호 문제 제기 및 상설 국제조직 설립 추진
-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설립,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 채택
- 제네바에서 제기된 인도주의 의제가 국제조직과 국제 규범으로 제도화

○ 의제의 확장(1872)

- 미국·영국 간 앨라배마 중재가 제네바에서 타결되어 국가 간 분쟁을 무력이 아닌 중재로 해결
- 이를 계기로 제네바는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는 장소'라는 국제적 평판 확보

○ 제네바는 국제연맹 유치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인도주의·평화적 분쟁해결 의제의 조직·규범·중재 경험을 모두 보유

■ 두 번째 요인 - 도시 자산을 국제기구의 입지 경쟁력으로 전환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 브뤼셀과 경쟁

- 브뤼셀이 전후 평화 질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였던 반면, 제네바는 전쟁 당사국의 수도가 아니며 스위스의 중립성을 기반으로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강조
- 칼뱅주의 전통과 ICRC 활동으로 형성된 인도주의적 명성이 결합되어 구체적 유치 논리로 전환
- 당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향후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을 고려할 때 침공·점령을 경험한 벨기에보다 중립국 스위스의 제네바가 적합하다고 판단

■ 세 번째 요인 - 윌리엄 래퍼드(William Rappard)의 리더십과 국제 네트워크

○ 제네바대학교 교수이자 ICRC 회원이었던 윌리엄 래퍼드는 미국 학계·정치권과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

- 뉴욕에서 스위스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래퍼드는 1911년 하버드대 강사로 초빙되어 윌슨과 그 주변 인물들과 접촉
- 래퍼드는 1917년 전시 곡물 공급 교섭을 위한 스위스 경제사절단으로 워싱턴 방문하여 윌슨과 개인적 신뢰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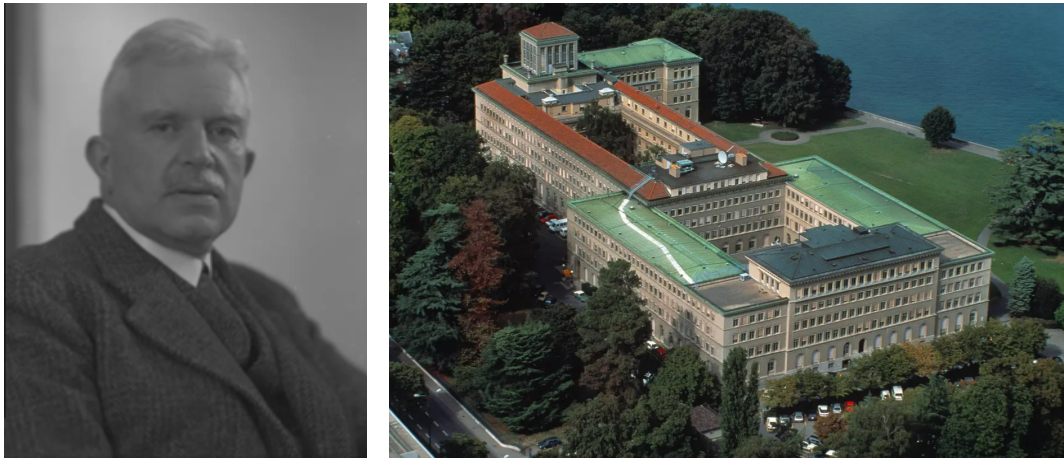
○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 스위스 대표로 활동

- 국제법·스위스 중립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4대국' 지도자들이 제네바를 선호하도록 설득
- 헤이그·런던·브뤼셀과의 경쟁에서 제네바 유치를 지지하고, 이어 스위스 국민 설득 캠페인까지 전개

○ 유치 이후의 역할

- 1920년부터 국제연맹 사무국 위임통치 부서장, 상설위임통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제네바대학 총장(1926)과 국제학대학원 공동 설립자로서 국제기구 인력 공급 교육기관 설립

윌리엄 래퍼드와 윌리엄 래퍼드 센터



〈자료〉 Bibliothéque de Genève, Boissonnas, 「William Rappard」, Neue Zürcher Zeitung(NZZ), 「Trump's trade wars threaten the WTO ...」.

■ 네 번째 요인 - 시민의 지지

- 국제연맹 본부 유치 결정 이후에도 '국제연맹 가입이 전통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국내 반발 지속
 - 제네바의 국제연맹 유치와 함께 스위스 국내에서는 국제연맹 참여와 전통적 중립성을 양립시키는 문제가 주요 정치적 과제로 부상
 - 1920년 이른바 '런던 선언'으로 군사적 제재 불참이라는 특수한 중립적 지위를 인정받아 가입과 중립의 양립 조건 마련
 -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연방의회가 「스위스의 국제연맹 가입에 관한 연방결의」를 채택하고, 국민투표에서 56.3%의 찬성으로 승인되면서 국제연맹 가입을 위한 국내 정치적 정당성 확보

■ 다섯 번째 요인 - 시·연방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 열악한 초기 상황
 - 1920년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네바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호텔과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국제기구를 수용할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음
 - 조직과 직원이 증가하면서 공간 부족과 높은 생활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일부 기관의 이탈 가능성까지 나타나자, 스위스와 제네바 시 정부는 세제 혜택과 토지 제공 등을 통해 정착을 지원
 - ILO는 1926년 독립적인 본부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국제연맹도 1929년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 건설에 착수하여 1936년에 이전
- 지원의 제도화
 - 스위스 연방·제네바 시 정부는 1964년 국제기구건물재단(FIPOI)을 설립해 건물·사무공간 확보를 상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제네바의 국제도시 형성은 국제연맹의 유치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실제 수요에 대응하여 정착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어짐

04 고양시의 제네바 되기

■ 제네바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 글로벌 AI 허브 유치가 고양시의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국제기구 도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면, 고양시는 제네바의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야 함

- 고양시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 ① 국제 의제의 선점, ② 도시 자산의 입지 경쟁력 전환, ③ 유치할 수 있는 리더와 리더십, ④ 시민의 지지, ⑤ 고양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

■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 제네바가 인도주의(적십자)와 국제분쟁 조정이라는 국제 의제를 선점했듯이, 고양시는 AI 시대의 구체적인 국제 의제를 선점 및 축적해야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2026년 3월 'AI교육 커리큘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 국민 대상 맞춤형 AI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중심으로 AI 교육 의제의 거점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의 AI 사법절차 도입, AI 기반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등 AI 규제·법치 분야의 정책연구를 활용하여 고양시가 'AI 국제 규범과 법치'를 의제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고양시에는 7개의 대형병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의 암 AI센터와 록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분원을 EU-아시아 공동연구 창구로 활용하여 데이터 거버넌스, AI 의료윤리 교육, 개도국 보건인력 교육과 AI 기술이전 등의 의제 선점 가능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자료〉 고양신문, 「EBS 교육방송, 고양시대 막 올랐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사법연수원」.

□ 어떻게 도시 자산을 활용할 것인가?

- 제네바가 중립성과 인도주의적 명성,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이라는 도시 자산을 국제기구 유치 경쟁력으로 활용했듯, 고양시는 보유한 도시 자산을 AI 허브 입지 논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는 최인훈 작가의 평화문학 유산과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자산을 활용하여 남북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허브가 되겠다는 평화 브랜딩 필요
 -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동북아평화자료원을 중심으로 평화·통일 아카이브를 AI 학습·분석 자료원으로 개방하여, 고양시를 '평화 데이터 기반 AI 연구 거점'으로 조성
 - 꽃의 도시라는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와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 호수공원을 활용하여 고양시를 녹색 AI(Green AI)를 실천하는 도시로 제안

동북아평화자료원과 일산호수공원



〈자료〉 고양신문, 「고양에 들어서는 동북아평화자료원, 시민의 평화문화 공간으로」, 고양신문, 「일산호수공원, 산림청이 뽑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 누가 유치할 것인가?

- 윌리엄 래퍼드가 자신의 하버드 인맥과 월슨 대통령과의 관계, 파리평화회의의 참여를 통해 제네바를 국제연맹의 도시로 만들었듯이, 고양시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치 선언식에 함께 참여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중앙정부, 국회를 설득하는 전략 필요
 -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과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의 국제 보건·의료 협력 경험을 활용하여, 고양시가 보건·의료와 AI를 결합한 국제 의제를 제안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병원연맹(IHF)은 제네바를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보건기구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고양시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접점으로 IH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항공대학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교육훈련 파트너로 활동해 온 경험 역시 중요한 국제협력 자산이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UN 전문기구와의 향후 협력 과정에서도 한국항공대학교와 허희영 총장의 리더십 기대

고양시장-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와 명지병원 이사장의 국제병원연맹 회장 선출

고양신문
HOME > 뉴스 > 정치행정

민경선 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첫 정책 간담회

A. 남동진 기자 | 승인 2020.08.31 22:51

민선9기 첫 공식 회동, 사국회 협업 시동
K-컬처벨라교통 등 주요 현안 20건 논의
장릉 공업물량 반량 경자구역 등 12건 건의
단발성 행사 탈피, 정례 소통기구 안착 과제



민경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첫 간담회를 열고 시장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 정책 협의를 가졌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중앙일보 | 입력 2020-11-11 11:29:10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HF)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대한병원협회가 11일 전했다.

국제병원연맹은 대한병원협회 등 70여개국 병원협회와 각국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29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자료〉 고양신문, 「민경선 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첫 정책 간담회」, 중앙일보,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 어떻게 시민의 지지를 끌어낼 것인가?

- 1920년 제네바의 국제연맹 유치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듯이, 고양시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서도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가 핵심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고양시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먼저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제안하였고, 이 의제가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핵심 공약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가?

- 제네바가 1929~1936년 팔레 데 나시옹을 건립하고 1964년 국제기구건물재단(FIPOI)을 설립해 국제기구의 물리적 정주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듯, 고양시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 경쟁 도시와 차별화되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킨텍스를 중심으로 사무·국제회의의 공간을 제공하고, 'AI 허브 빌리지'와 같은 국제학교 등 국제기구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 인프라 조성
 - 주거·의료·생활지원, AI·도시데이터 연계, 국제회의 지원, 지원 조례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패키지화하여 유치부터 장기 정착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

참고문헌

- Christian Birebent, "The Spirit of Geneva," EHNE – European History Online Encyclopedia, <https://ehne.fr/en/encyclopedia/themes/international-relations/cultures-peace/spirit-geneva>
- Daniel R. Quiroga Villamarín, "'Suitable Palaces': Navigating Layers of World Ordering at the Centre William Rappard (1923–2013)," *Architectural Theory Review*, Vol. 27, No. 1 (2023), pp. 19–40.
- Fondation pour Genèv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Sector on Geneva and the Lake Geneva Region, The Observatory of the Fondation pour Genève, "Impact" Booklet No. 1/6, 2013, p. 56.
- Genève internationale, "Facts & Figures," <https://geneve-int.ch/index.php/facts-figures>
- Genève internationale, "Historical Milestones," <https://www.geneve-int.ch/historical-milestones>
- Pierre-Etienne Bourneuf, Genève, berceau de la Société des Nations, United Nations, 2022, pp. 72–74.
- Sandrine Kott and Grégoire Carasso, "The Making of International Geneva," SWI swissinfo.ch, July 16, 2018,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opinion_the-making-of-international-geneva/44247500
-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NOG) Library, Registry, Records and Archives Unit, History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1946), p. 4.
-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N Geneva), "Transition to the United Nations," <https://www.ungeneva.org/en/about/league-of-nations/transition>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자문

오준 前 UN대사 자문

이왕준 차기 국제병원연맹 회장 자문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자문

황선숙 MBC C&I 이사 자문

안지호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위원 (ajh@goyang.re.kr, 031-8073-8352)

김범수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위원 (bsk@goyang.re.kr, 031-8073-8411)

박지인 고양연구원 인턴

이슈리포트

고양시, 어떻게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할 것인가? -제네바 사례를 중심으로

- 01 글로벌 AI 허브와 지자체 유치 경쟁
- 02 왜 제네바인가?
- 03 제네바, 어떻게 국제기구 도시가 되었는가?
- 04 고양시의 제네바 되기